



롯데리조트, 고객감동경영대상 12년 연속 수상

롯데리조트는 지난 7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주최, 한국지속경영평가원 주관 '2022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서비스·레저 부문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고원석 대표(오른쪽)가 서비스·레저부문 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리조트



위니아담체, '사회공헌 공로' 법무부장관 표창

위니아담체는 최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위니아담체가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데 따라 수상하게 됐다. 위니아담체 대표협력담당 조경형 상무(오른쪽)와 법무부 보호정책과 김동하 사무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위니아담체



지앤지커머스, 취약층 대상 사랑나눔 실천

B2B 온라인 유통 플랫폼 '도매꾹·도매매'를 운영하고 있는 지앤지커머스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대상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영리 법인단체 '꿈이 있는 더 작은 사람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기부 행사에서 지앤지커머스는 서울 영등포구 취약계층을 위해 쌀 10kg, 100포대를 기부했다. /지앤지커머스



'한자리서 30년' GS25 최장수 경영주 기념식

편의점 GS25는 GS25를 최장 기간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의 기쁨 가입 30주년 기념일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최장수 타이틀을 거머쥔 가맹점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GS25역삼2점을 운영하는 성인제 경영주다. 성인제 경영주(오른쪽)와 최영미 배우자(왼쪽)가 근무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25



홍경안 의  
시시일각

미디어아트(Media Art)는 매체에 예술을 도입한 것이다. 글자, 소리, 이미지를 구성요소로 하며 언어, 음악, 그림으로 표현된다.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이기에 미디어 자체만으론 예술이 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미디어이지, 예술은 아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몰입형 미디어아트'라 불리는 것들 역시 대부분은 미디어일 뿐 '아트'와는 거리가 있다. 그 전시들이 예술이 되려면 사회적 의제 생산이 가능하고 미학적인 미를 지녀야 한다. 하지만 대개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는 그렇지 못하다. 역할이란 것도 화려한 조명과 프로젝션 맵핑을 통한 시각적 환영에 초점을 둔 SNS포스팅용이다. 휴대전화에 담긴 수십 장의 사진을 제외하곤 사실상 남는 게 없다. 미디어를 통한 예술의 가치와 흐

## 매체의 변화, 예술의 진화

름, 시대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바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에서 진행 중인 '미래의 역사쓰기: ZKM 베스트 컬렉션' 전이다. 독일 '예술과 매체 기술센터'(ZKM: Zentrum für Kunst und Medientechnologie)의 핵심 소장품 약 100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1960년대 초기 비디오아트 작품부터 현재까지 미디어 아트 역사에 방점을 찍은 주요 작품들이 총망라돼 미디어아트 60년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출품작들은 신체경험의 직접성을 매개성으로 치환해온 작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와 독일 예술가 울레이카 협업한 영상 작품 'Rest energy'(1980)를 비롯해 그로테스크한 작풍의 'Hello?', 고트프리트 헬른바인의 사진 '앤디 워홀, 뉴욕 1983'(1993) 등 다양하다. 특히 1965년 제작돼 전체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컴퓨터아트의 선구자 마이클 놀의 컴퓨터 드로잉과, 미디어아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컴퓨터 인

터랙티브 아트 작품으로 꼽히는 제프리 쇼의 '읽을 수 있는 도시'(1989)도 만날 수 있다.

이중 '읽을 수 있는 도시'는 관람객이 고정된 자전거 패달을 밟으면서 가상의 '텍스트 도시'로 들어가 곳곳을 이동하는 인터랙티브 설치 미술작품이다. 눈에 보이는 건 가상 현실이지만 현실적 공간에서 자전거를 밟는 행위를 통한 신체성의 의식에 방점을 둔다.

이밖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우디 바솔카, 알도 램빌리니, 다니엘 하이스, 하룬 파로키, 라파엘 카데나스, 에드먼드 퀴렐, 발터 지에르스, 칸디다 회퍼, 백남준 등 아티스트 64명의 작업이 6개 소주제 아래 소개된다. 모두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개척해온 명성 자자한 작가들의 작품이다.

미디어아트로 묶여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이번 전시는 마르셀 뒤샹과 플럭서스의 틀 내에서 오브제와 행위예술 그리고 이브 클라인 류의 비물질성 등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다. 따라서 미디어아트의 계보는 물론 어떻게 장르 간 학제 간 경계

없는 융합의 예술이 전개됐는지도 미술사적 맥락에서 훑을 수 있다.

'미래의 역사쓰기: ZKM 베스트 컬렉션'은 약 2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신중하게 선택한 작품들이 미술관 전관에 방대하게 놓여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예술의 진화를 기술적인 매체의 변화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무대"라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미래의 역사에 기여하도록 하는지 사유하게 한다는 점이야말로 이번 전시가 지닌 의의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과 협업한 '예술과 매체 기술센터'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산업도시카를스루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미디어 복합기관이다. 공예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추구했던 '바우하우스'를 모델로 1989년 건축가인 하인리히 클로츠에 의해 창립됐으며, 1997년 개관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품 생산 공장이었던 건물을 개조한 이곳엔 작품 약 1만여 점이 소장돼 있다. 전시는 오는 4월 3일까지다. /미술평론가

## 현대차그룹 '아이오닉5' 등 6개車 디자인 경쟁력 입증

2021 굿 디자인 어워드  
운송 디자인 부문 수상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전통적이며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아이오닉5·스타리아·EV6·카니발·GV70·X 콘셉트 등 6개 차종이 미국 '2021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운송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협력해 선정하는 상이다. 포춘 500대 기업의 다양한 제품에 대해 부문별 수상작을 매년 발표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스타리아 2개 차종이 운송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차 고유의 디자인 정체



현대차 아이오닉5.

성 '파라메트릭 픽셀'을 적용한 아이오닉5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DEA 디자인상 최고상에 이어 굿 디자인 어워드에 이름을 올렸다. 스타리아는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 '인사이드 아웃'을 최초 적용한 모델로 사용자 중심 공간을 구현했다.

기아는 EV6와 카니발 2개 차종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EV6는 기아

의 새 디자인 철학 '오픈잇 유니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반영한 첫 전용 전기차다. 카니발은 '웅장한 볼륨감'을 외장 디자인 콘셉트로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표현했다.

제네시스는 올해 GV70과 X 콘셉트가 수상했다. 브랜드를 출범한 2015년부터 7년 연속으로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GV70은 쿼드

램프와 크레스트 그릴 등으로 제네시스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X 콘셉트는 2021 레드닷 어워드도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1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6개 차종과 함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E-Pi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쿠아 디자인, 전기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종이(Jong-e) 등 현대차그룹 여러 기술과 제품이 수상작에 포함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는 각 브랜드별 디자인 정체성 아래 감각적이고 철학적인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보된 이동 경험과 이동의 자유를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디자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인사

◆ 산업은행 △ 혁신성장금융부(단장) △ 간접투자금융실 이인기(팀장) △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차창훈 김도준 △ 간접투자금융실 이상윤 이윤진 △ 온렌딩금융실 서영태 김윤미 △ 중소기업금융부(단장) △ 강남지역본부 김중규 △ 강북지역본부 박래현 △ 경인지역본부 김강서 △ 중부지역본부 이승기 △ 대구경북지역본부 여동복 △ 충청지역본부 이준호 △ 호남지역본부 박성운 △ 영업부 전은주(팀장) △ 네트워킹지원실 신원용 김홍준 △ 신산업금융실 서정훈 김홍석 △ 강남 이화용 김준수 △ 도곡 서정완 △ 서초 이정훈 △ 압구정 김호준 △ 잠실 이정아 △ 잠원 이홍선 △ 제주 강경우 △ 한티 오희승 △ 가산 함지호 △ 금천 장세강 △ 노원 박솔곤 △ 마곡 이종화 황찬익 △ 마포 류윤주 오봉영 △ 성동 김일오 송현미 △ 여의도 민재현 방환술 △ 영남부 김기홍 남정윤 △ 서울 남부 △ 김포 심상돈 △ 부천 이영훈 신희준 △ 송도 정대환 △ 시화 이창훈 △ 일산 장소연 김복임 △ 동탄 정상수 오정현 △ 분당 김형진 유희경 공태희 △ 수원 박세민 신수진 △ 안양 황인준 이창현 △ 용

인 홍승환 △ 원주 정용현 △ 판교 임영식 △ 평택 이재준 △ 금정 이훈영 △ 부산 임상엽 △ 서부산 양동원 △ 양산 박태준 △ 창원 최원욱 이동주 △ 경산 이대영 △ 구미 정유형 △ 대구 윤소정 △ 성서 유기대 △ 포항 김동환 △ 당진 김상현 △ 대전 이영진 △ 천안 김지명 △ 청주 최상운 △ 충주 배경호 신희림 △ 광주 나형호 박정후 △ 군산 김준경 △ 여수 이종현 △ 전주 김태경 △ 기업금융부(단장) △ 산업·금융협력센터 진형태(팀장) △ 산업·금융협력센터 이인규 △ 기업금융1실 김상래 이준규 △ 기업금융2실 강선희 조해리 △ 기업금융3실 유현진 김영 △ 기업금융4실 김경우 윤동수 △ 글로벌사업부(단장) △ 금융공학실 노형준(팀장) △ 해외사업실 임형근 이호재 △ 무역금융실 이정민 최우수 △ 자금운용실 이강석 송준관 윤석진 △ 금융공학실 이광수(해외주재원) △ KDB홍콩 김유성 강안호 △ 싱가포르 조영욱 △ 베이징 김재우 △ 선양 조정훈 △ 칭다오 신상택 △ 런던 백현주 조한준 △ KDB유럽 전준표 △ 자본시장부(팀장) △ 발행시장실 김강수 황희철 윤정진 △ M&A 컨설팅실 김광석 윤영삼 백주한 △ PE실 윤동일 정지윤 △ 심사평가부(팀장) △ 심사부장

석 △ 심사2부 손해미 장윤경 △ 신용평가부 김진수 △ 해외주재원 △ KDB홍콩 장운석 △ 리스크관리부(단장) △ 리스크관리부 오재균(팀장) △ 리스크관리부 강석진 이정연 △ 금융결제부 김재범 송현주 △ 정책·녹색기획부(팀장) △ 종합기획부 강중재 성욱제 황연정 배철호 △ 영업기획부 이상용 △ 재무기획부 서창민 백정호 이종훈 △ ESG·뉴딜기획부 한원석 △ 경영관리부(원장) △ 총무부 심재풍(단장) △ 홍보실 김현진(팀장) △ 인사부 이석준 정기석 오달영 김은영 △ 총무부 백승복 박형배 장인우 △ 벤처금융본부(팀장) △ 벤처기술금융실 이종화 △ 스페셜금융실 한정규 △ 넥스트라운드실 권형민 이화경 △ 해양산업금융부(팀장) △ 해양산업금융실 노병국 △ 구조조정본부(팀장) △ 기업구조조정1실 양재호 정광락 신재호 △ 기업구조조정2실 오세현 △ 기업구조조정3실 김홍석 △ 기간산업안전기금본부(팀장) △ 기금사무국 모인서 오호정 △ PF본부(단장) △ PF3실 김연식(팀장) △ PF2실 마상현 윤희진 △ PF3실 진준성 △ 연금신탁본부(단장) △ 신탁실 이승현(팀장) △ 연금사업실 김미원 지은주 △ 신탁실 조한진 △ IDT본부(팀장) △ IT기획부 장

준호 △ 코어금융부 장형숙 원유태 △ 디지털금융부 이정식 이은정 △ 디지털전략부 장원석 △ 자금조달본부(팀장) △ 자금부 장영식 원상훈 △ 수신기획부 박영우 천성현 △ KDB미래전략연구소(팀장) △ 미래전략개발부 김성한 박은수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연정훈 정홍석 남우준 △ 보안평가부 보안평가총괄팀 정재철 △ 보안평가부 보안평가2팀 오원경 △ 자율보안부 자율보안기획팀 이수미 △ 팀장 △ 총무부 업무지원팀 최기룡 △ 금융보안관제센터 보안관제

팀 유정각 △ 금융보안관제센터 모바일보안팀 황종모 △ 침해대응부 침해위험분석팀 장운영 △ DT대응지원부 핀테크평가팀 권오도 △ 자율보안부 보안인증팀 이득기 △ 금융보안교육센터 교육전략팀 김태훈

◆ 유유계약 △ 중앙연구소장 신우철

### 부음

▲윤성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前 서울남부지법원장) 발세 = 11일 15시 이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시간 미정, 장지 미정. 02-2258-5940  
▲신영환씨 별세, 신수경(국노십자 의학본부장)·성우·희경·지은씨 부친상 = 11일(화), 칠곡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 107호실(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발인 13일(목) 오전 5시30분, 명복공원. 053-200-2500  
▲이청자씨 별세, 박명환(제14~16대 국회의원)씨 부인상, 박연신씨 모친상 = 10일 오후 11시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장지 이천 에덴낙원. ☎ 02-2227-7597